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 영향요인

김효정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of Unmarried Women

Hyo-Jung Kim

College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미혼 여성의 자기효능감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는 미혼 여성으로 자료수집은 2018년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최종 190명이 연구의 대상자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고,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나이, 현재 이성친구 유무, 이성교제 횟수, 성경험 유무에 따라 성적 자기주장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적 자기주장은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r=.149, p=.041$), 성역할 고정관념과는 부적 상관관계($r=-.579, p<.001$)를 보였다.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경험 유무와 성역할 고정관념이었으며 이들은 41.7%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이 아닌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을 높이기 위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unmarried women's self-efficacy and sex role stereotypes on sexual assertiveness.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unmarried women who had experience of dating.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by online from July 17th to 19th, 2018. The final 190 subjects were the subject of the study and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24.0 program. Pearson's correlation was used for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effect on sexual assertivenes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cores of the sexual assertiveness according to the age, having a boyfriend, number of intimate relationship, and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xual assertiveness and self-efficacy, while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xual assertiveness and sex role stereotypes.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were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and sex role stereotypes, which accounted for 41.7%.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among unmarried women who are not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increase the sexual assertiveness of unmarried women, it is necessary to have a program that takes into account stereotypes of sex roles.

Keywords : sexual assertiveness, self-efficacy, sex role stereotypes, unmarried, wome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는 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개방적

인 성문화가 보편화되어 이성교제와 성행동이 과거에 비하여 자유로워졌다. 실제로 미혼 남녀의 성행동을 살펴보면 첫 성관계 평균 연령이 남성은 20.6세, 여성은 22.1세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69.4%, 여성의 89.8%가 이성

*Corresponding Author : Hyo-Jung Kim(Suwon Women's Univ.)

Tel: +82-31-290-8235 email: bluebisang@swc.ac.kr

Received August 2, 2018

Revised (1st August 30, 2018, 2nd September 11, 2018, 3rd September 17, 2018)

Accepted October 5, 2018

Published October 31, 2018

친구와의 교체 경험이 있었다. 반면 성관계시 항상 피임을 하는 경우는 남성 34.8%, 여성 34.4%에 그쳤다[1]. 미혼 남녀는 첫 성관계를 비교적 일찍 시작하는 반면 피임 실천율은 낮음을 알 수 있다.

개방적인 성문화는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한다. 확고한 성적 주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 원치 않은 성행동을 할 수 있고, 원치 않은 성관계는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2]. 또한 원치 않은 임신, 성병, 미혼모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원치 않은 성행동에 응낙하는 경우가 많고[3], 사랑한다는 이유와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로 성행동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4].

성행동 상황에서 성적 자기주장이 낮으면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5]. 따라서 미혼 여성은 주체성을 가지고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적 자기주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성적 자기주장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성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몸 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원치 않는 성행동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이다[6]. 또한 성적 상황에서 자신의 성적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성 관련 행동을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작용을 하며 안전한 성행동을 위한 중요한 예측요인이다[7] 미혼 여성의 원치 않는 성행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8] 여러 가지 건강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9,10].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일의 성취가 달라지는데[11] 따라서 자신이 성적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성적 자기주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성적 자기주장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안전한 성행동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자기효능감은 이러한 안전한 성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으며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 임신 위험을 예방하는 것에 더 중요한 요소이다[12]. 따라서 미혼 여성의 자기효능감과 성행동 상황에서의 성적 자기주장에 대하여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성적 자기주장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드물었으나 유사 개념인 성적 자율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은 상

관관계가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성적 자율성이 달라지고[13] 성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1].

성적 자기주장은 성행동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에 따른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 자기주장이 일반적인 자기주장과 다른 점은 이는 친밀하게 지내는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적 자기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평소에 사회적으로 학습된 여성의 이미지, 여성의 특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그 문화 안에서 성별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규정되는 행동들을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사고, 태도, 행동양식으로 전수되어 습득하게 되면서 각 성별에 대한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14]. 전통적 성역할을 수용하는 사람은 성적 자기주장이 낮아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 시 거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15].

성역할 고정관념은 나이가 어릴수록, 미혼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취업 여성일수록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16]. 최근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지고 선진화된 문화의 수용으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였지만 여전히 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행동 상황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17] 미혼 여성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성행동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성적 자기주장 논문은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7,18,19]가 주를 이루었다. 미혼여성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였으며 학생의 신분으로 부모의 영향력이 많이 남아있는 대학생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또한 최근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이성교제가 가능한 기간이 늘어나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 이성과의 성행동에서 남자가 함께 주체가 되어야만 발전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혼 여성의 성행동 상황에서 자기효능감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상자의 나이, 학력, 직업, 소득, 이성교제 경험 관련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미혼 여성의 자기효능감,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성인 미혼여성으로 임의 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였으며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문의 내용이 성행동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설문조사보다는 편안하게 설문에 응할 수 있는 온라인 자료수집을 선택하였고,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 전 연구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기재하였고 스스로 동의를 한 경우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성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표본 수 산출을 위하여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중간 효과크기인 0.15, 검정력 0.95로 계산하였다. 예측요인은 10개를 투입한 결과 172명이 산출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90명을 모집하였다. 설문 응답 결과 응답이 불성실한 대상자는 없었으며 최종 1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나이, 학력, 직업 유무, 소득 정도, 현재 이성교제 여부, 이성교제 횟수, 성경험 유무로 구성하였다.

2.3.2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20]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정애순[21]이 수정 및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2점, ‘보통이다’가 3점, ‘대체로 그렇다’가 4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2.3.3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동일[22]이 개발한 성역할 고정관념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다. ‘가족의 생계문제는 남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여자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고 남자는 바깥일을 하는 것이 좋다’, ‘남자는 여자보다 공격적이다’ 등 총 33개의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은 .95 이었다.

2.3.4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기주장을 파악하기 위하여 Patricia 등[23]이 개발한 Sexual Assertiveness Scale을 최명현[24]이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성적 접촉 거절 요인 6문항, 임신과 성병 예방 요인 6문항을 포함하여 12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총 12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그렇지 않다’가 2점, ‘보통이다’가 3점, ‘그렇다’가 4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을 더 많이 행사하고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8으로 나타났다.

2.4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IBM statistic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한 서술통계를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은 t-test와 ANOVA, Kruskal-Wallis를 시행하였다.
- (3)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성적 자기주장 점수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변수와 자기효능감, 성역할 고정관념 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미혼 여성이었으며 20대가 70명(36.8%), 30대 이상이 120명(63.2%)이었다. 미혼 여성 중 163명(85.8%)이 현재 직업이 있었고 27명(14.2%)은 무직이었다. 학력은 대졸이 148명(77.9%)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28명(14.7%), 대학원졸업이 14명(7.4%)으로 그 뒤를 따랐다. 소득은 ‘중’이라고 응답한 여성이 101명(53.2%)으로 가장 많았고, ‘하’가 78명(41.1%), ‘상’이 11명(5.8%)이었다.

현재 이성친구가 있는 미혼 여성은 91명(47.9%), 이성친구가 없는 여성이 99명(52.1%)으로 두 그룹이 비슷하였다. 지금까지의 이성교제 횟수는 1~4회가 120명(63.2%)이었고, 5회 이상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여성은 70명(36.8%)이었다. 성경험을 묻는 질문에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148명(77.9%), 없다고 응답한 여성은 42명(22.1%)이었다(Table 1).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 정도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은 나이($t=2.59, p=.010$), 현재 이성친구 유무($t=-3.33, p=.001$), 이성교제 횟수($t=3.04, p=.003$), 성경험 유무($t=-3.31,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0대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은 50.61점으로 30대 이상의 미혼 여성보다 점수가 높았다. 현재 이성친구가 없는 여성이 이성친구

가 있는 여성보다 성적 자기주장 점수가 높았으며 50.48 점을 나타내었다. 이성교제의 경우 지금까지의 이성교제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가 5회 이상인 경우에 비하여 성적 자기주장의 점수가 높아 50.00점을 나타내었다. 성경험이 없는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 점수는 52.19점으로 성경험이 있는 여성의 47.68점에 비하여 점수가 높았다 (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N=190)

Variable	Categories	N	%
Age	20-29	70	36.8
	≥30	120	63.2
Occupation	Yes	163	85.8
	No	27	14.2
Education level (graduated)	High school	28	14.7
	University	148	77.9
	Graduate school	14	7.4
Economic level	High	11	5.8
	Middle	101	53.2
	Low	78	41.1
Having a boyfriend	Yes	91	47.9
	No	99	52.1
number of intimate relationship	1-4	120	63.2
	≥5	70	36.8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Yes	148	77.9
	No	42	22.1

Table 2. Sexual assertiveness sco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N=190)

Variable	Categories	M±SD	F/ χ^2
Age	20-29	50.61±8.13	2.59
	≥30	47.55±7.68	(.010)
Occupation	Yes	48.66±7.58	-0.06
	No	48.77±10.15	(.948)
Education level (graduated)	High school	46.85±7.72	2.45
	University	49.14±7.97	
	Graduate school	47.42±8.38	
Economic level	High	50.00±8.76	0.64
	Middle	48.87±7.63	
	Low	48.25±8.34	
Having a boyfriend	Yes	46.72±7.71	-3.33
	No	50.48±7.81	(.001)
number of intimate relationship	1-4	50.00±7.85	3.04
	≥5	46.42±7.70	(.003)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Yes	47.68±7.94	-3.31
	No	52.19±7.09	(.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research variables (N=190)

Variables	self-efficacy	sex role stereotypes	sexual assertiveness
self-efficacy	1		
sex role stereotypes	-.208 (.004)	1	
sexual assertiveness	.149 (.041)	-.579 (<.001)	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N=190)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64.11	3.76		17.06	<.001
Ages	0.11	0.98	0.01	0.11	.919
Having a boyfriend	-1.44	0.95	-0.09	-1.53	.128
number of intimate relationship	1.72	0.97	0.11	1.77	.078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3.95	1.15	-0.21	-3.43	.001
self-efficacy	0.04	0.04	0.05	0.91	.363
sex role stereotypes	-0.21	0.02	-0.54	-8.82	<.001

R²=.417, Adjusted R²=.398, F=21.82(p<.001), Durbin-Watson= 2.24

3.3 자기효능감,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의 상관관계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은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149, p=.041$)를 나타내었고, 성역할 고정관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579, p<.001$)를 보였다. 자기효능감과 성역할 고정관념 또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208, p=.004$)를 나타내었다(Table 3).

3.4 성적 자기주장 영향요인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 성역할 고정관념과 일반적 특성 중 성적 자기주장 점수가 유의하게 차이가 났던 나이, 현재 이성친구, 이성교제 횟수, 성경험 유무까지 총 6개의 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이, 현재 이성친구, 이성교제 횟수, 성경험 유무는 모두 2개로 항목으로 이루어진 명목척도로 이들 변수를 하나의 범주를 1, 나머지 범주를 0으로 입력하여 더미화하여 다중회귀분석에 이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값은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고, Durbin-Watson 값이 2.24로 2에 가까워 오차의 자기상관이 없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R²값이

41.7%를 나타내었으며,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역할 고정관념($\beta=-0.54, p<.001$)과 성경험 유무($\beta=-0.21, p=.001$)로 나타났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진행되었다.

미혼 여성의 일반적 특성 중 성적 자기주장에 차이가 나타난 변수는 나이, 현재 이성교제 유무, 이성교제 횟수, 성경험 유무였다. 나이의 경우, 20대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점수는 50.61점으로 30대 이상 여성의 47.55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대학생인 20대 초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따라서 나이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 정도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20대와 30대 이상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대상자의 또 다른 일반적 특성인 이성교제 횟수, 성경험 유무와 동반되어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이성교제 횟수가 많을수록, 성경험이 있는 경우 성적자기주장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30대가 20대에 비하여 이성교제 횟수가 늘어나고, 성경험의 확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0대 이상의 여성에서 성적 주장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이성교제와 관련된 변수에서는 모두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우선, 현재 이성친구가 있는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 점수는 46.72점으로 현재 이성친구가 없는 여성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성교제 횟수에서는 지금까지 이성교제 횟수가 5회 이상인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 점수는 46.42점으로 이성교제 횟수가 1~4회인 여성에 비하여 점수가 더 낮았다. 성경험에서도 성경험이 있는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 점수는 47.68점으로 성경험이 없는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 점수보다 유의하게 더 낮았다. 정리하면, 현재 이성교제를 하며 지금까지 이성교제의 횟수가 5회 이상이고 성경험이 있는 미혼여성의 성적 자기주장 점수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실제로 이성교제를 하고 있거나 이성교제의 경험이 많아지면 성적 자기주장을 오히려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대생의 이

성교제 경험이 1명일 때 비하여 4명이상일 때 성적 자기주장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24]. 여성의 성행동은 감각적인 욕구보다는 관계적 욕구 만족을 위한 경우가 많다[24]. 이성교제 횟수가 늘어나면서 교제하는 이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양식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로 보여진다. 경험이 반복되면 긍정적인 부분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이성교제의 경험이 많은 경우 오히려 성적 자기주장 점수가 낮아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성경험의 경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교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 성교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성적 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났고[17], 여대생의 연구결과에서도 여대생의 성교경험이 성적 자기주장성을 낮추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18]. 성경험이 있는 여성이 성적 자기주장이 더 낮다는 것은 원하지 않는 성행동 상황에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생과 다르게 미혼 여성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지역사회나 직장 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많은 여성이 이에 관심을 갖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 영향요인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경험 유무였으며 이는 성적 자기주장을 41.7% 설명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유의한 예측요인이라고 한 연구결과[17],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낮아진다는 결과[25]와 일치하였다. 여대생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에게서도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아 여성은 수동적이고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등의 전통적 여성상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 이성친구와의 성행동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기주장을 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여성에게 전통적인 역할만을 강요하며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한 행동만을 요구한다면 이는 여성의 능력과 재능을 제한하고 욕구를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26]. 즉, 성행동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이성친구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본인이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여성상에 벗어나다고 생각하여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여성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전통적 여성상을 대입하여 행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는 성행동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미혼 여성이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균형있는 성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성교제나 성행동, 그리고 여성과 남성으로서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젊은 세대는 성인식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가정의 양육환경, 사회의 인식, 직무 환경에서는 변화된 성 인식이 제대로 수용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들 수 있다[25]. 따라서 미혼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줄이고 성적 자기주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성 세대와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여러 TV 프로그램에서는 성역할을 재설정된 컨셉의 방송이 반영되고 있다. 매스미디어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생각했을 때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성경험 또한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경험이 있는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 점수가 더 낮았는데 이는 실제로 이성 간의 성행동 상황에서 성적 자기주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성교 경험이 성적 자기주장을 낮춘다는 선행연구 결과[17,18]를 뒷받침한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높은 애착 불안은 파트너로부터 관심을 끌어내고 안심을 얻고, 파트너의 나쁜 기분상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성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27]. 즉, 미혼 여성 중 애착 불안이 높으면 지금까지 이성과 이루어 온 친밀한 관계가 나의 거절로 인하여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성적 자기주장도가 낮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관련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성은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을 많이 할수록 이성관계의 전반적 만족감이 떨어지므로[28] 성행동 상황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기효능감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성적 자기주장과 유사 개념인 성적 자율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다고 하여[11]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되었다. 이는 성적 자율성에 비하여 성적 자기주장은 조금 더 실천적인 개념으로 성적 자율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성행동 상황에서 거절을 하는 등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일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미혼 여성 전체에게 확대 해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 논문에 더하여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의 영향요인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추후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자율성을 높이고 성적 자기주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격형 유무였다. 이들은 성적 자기주장의 41.7%를 설명하였다. 자유로운 성문화가 보편화 된 현대 사회에서 미혼 여성이 성행동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원하지 않는 성행동을 예방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성적 자기주장에 매개가 되는 변수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성적 자기주장 향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성의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 W. Hwa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contraceptive behaviors of un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13.
- [2] L. F. O'Sullivan, S. Hoffman, A. Harrison, C. Dolezal, "Men, Multiple Sexual Partners, and Young Adults' Sexual Relationships: Understanding the Role of Gender in the Study of Risk", *Journal of Urban Health*, Vol.83, No.4, pp.695-708.
DOI: <https://dx.doi.org/10.1007/s11524-006-9062-5>
- [3] J. I. Ahn, Y. G. Ko, "Effects of consensual unwanted sex and attachment on satisfaction with romantic relationship",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19, No.3, pp.233-251, 2014.
DOI: <https://dx.doi.org/10.18205/kpa.2014.19.3.003>
- [4] S. B. Chang, "Development of Sexual Autonomy Measurement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8, No.1, pp.106-115, 2001.
- [5] S. Y. Son, S. M. Lim,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consent to unwanted sex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University Life Research*, Vol.17, No.2, pp.17-36, 2011.
- [6] J. Y. Lee, E. S. Lee, "The Explanatory Models of Dating Violence and Victimization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7, No.2, pp. 419-436, 2005.
- [7] Y. S. Seo, Y. C. Kwon, "A Path Analysis of Variables Influencing convergence-based Safer Sexual Behavior of Early Adul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7, pp.299-307, 2016.
DOI: <https://dx.doi.org/10.14400/JDC.2016.14.7.299>
- [8]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1997.
- [9] Y. M. Ha, H. K. Choi, "Relationships among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Correctional Officers", *Korea Occupational Health Nursing Society*, Vol.23, No.3, pp. 163-170, 2014.
DOI: <http://dx.doi.org/10.5807/kjohn.2014.23.3.163>
- [10] J. H. Kim, M. J. Kwon, S. K. Jung, "The Influence of Health Locus of Control,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Middle-Aged Adul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4, pp.494-503,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4.494>
- [11] K. W. Kim, K. H. Kang, G. H. Jeung, "Self-Efficacy and Sexual Autonomy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6, No.1, pp.51-59, 2012.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1.051>
- [12] J. Pearson, "Personal control, self-efficacy in sexual negotiation, and contraceptive risk among adolescents: The role of gender", *Sex Roles*, Vol.54, pp.615-625, 2006.
DOI: <https://doi.org/10.1007/s11199-006-9028-9>
- [13] E. S. Do, Y. S. Seo, "Factors Influencing Sexual

Autonomy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0, No.2, pp.129-136, 2013.
DOI: <https://dx.doi.org/10.7739/jkafn.2013.20.2.129>

[14] C. S. Kang, J. H.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on Cor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stereotypes of Gender role and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Ability : Surveying residing in Jeju”,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8, pp.274-279, 2016.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6.17.8.273>

[15] S. H. Choi,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of Women University Student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ology Mental Health Nursing*, Vol.25, No.4, pp.367-374, 2016.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6.25.4.367>

[16] S. J. Kim, “Factors Affecting Gender-Role Stereotyp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44, No.1, pp.89-111, 2013.
DOI: <https://dx.doi.org/10.16999/kasws.2013.44.1.89>

[17] Y. H. Kim, S. T. Moon, H. S. Kang, "Factors Influencing on Sexual Assertivenes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19, No.3, pp.166-175, 2013.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13.19.3.166>

[18] S. M. Park, "The Influence of Myths about Sexual Violence and Acceptance of Dating Violence on Sexual Assertiveness of Femal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Konyang University, Chungnam, Korea, 2015.

[19] K. Y. Jo, Y. H. Kim,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of Wome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6, No.5, pp.2795-2806, 2014.

[20] M. Sherer, J. E.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R. W. Rogers,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51, No.2, pp.663-671, 1982.
DOI: <https://dx.doi.org/10.2466/pr0.1982.51.2.663>

[21] A. S. Jeo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Self-Efficacy in Nurses", Unpublished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2007.

[22] D. I. Kim, Gender Differences (3):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Sociology of sexuality, Seoul, Mooneumsa, 1991.

[23] P. J. Morokoff, K. Quina, L. L. Harlow, L. Whitmire, D. M. Grimley, P. R. Gibson, G. J. Burkholder, “Sexual Assertiveness Scale (SAS)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3, No.4, pp.790-804, 1997.
DOI: <https://dx.doi.org/10.1037/0022-3514.73.4.790>

[24] M. H. Choi,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among wome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05.

[25] K. S. Shon, S. M. Jeoung, "The Mediation Effects of Sexual Assertiveness between Gender-role Stereotypes and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21, No.3, pp.441-457, 2016.

[26] I. Y. Han, S. H. Hong, "Do Gender Role Attitudes Affect on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16, No.4, pp.477-498, 2011.

[27] D. Davis, P. R. Shaver, M. L. Vemon, “Attachment Style and Subjective Motivations for Sex”,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30, pp.1076-1090, 2004.
DOI: <https://dx.doi.org/10.1177/0146167204264794>

[28] J. I. Ahn, "Effects of attachment and consensual unwanted sex on satisfaction with romantic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2014.

김 효 정(Hyo-Jung Kim)

[정회원]



- 2010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강, 여성